

담배를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견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피는 사람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자주 들어왔습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담배의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으로도 담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가는 잘 알 수 있겠죠?

거리를 걸을 때, 특히 바람이 불 때에 앞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경우는 담배 연기때문에 기분이 불쾌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어느 담배 회사에서 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배는 피는 것도 건강해 나쁘지만, 담배의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TV를 통하여 광고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광고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스스로 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라든가 커피숍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미 정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다면 반드시 법에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